

K-디스플레이, 실적 적신호… ‘고부가 제품·원가 경쟁력’ 대응

3분기 매출·영업익 큰 폭 감소
4분기 OLED 출하량 증가 예상
완제품 수요 둔화 등 수익 변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출하 확대에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사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양사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4분기 OLED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 수요 둔화와 패널 가격 인하 압력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스마트폰·노트북 제조사의 부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다. 완제품 업체들이 늘어난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 패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LG디스플레이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6조2770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42% 감소한 수치다.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과 고가 제품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됐다. OLED 매출 비중은 67%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29일 확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이지만 올해는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3분기 영업이익을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비중이 높은 데다 지난 7월부터 8.6세대 IT용 OLED 생산에 나서면서 주요 고객사의 수요와 신규 생산라인의 초기 비용 부담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양사의 모바일 OLED 패널 출하량

은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폴더블용 OLED 출하량은 9135만장으로 전 분기보다 7.8%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2305만장으로 51.1% 늘었다. LG디스플레이의 4분기 모바일 OLED 출하량은 연중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폴더블 OLED 시장 확대도 삼성디스플레이에 기회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용 AMOLED 패널 출하량이 2900만장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8과 애플의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에 패널을 공급하면서 올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6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OLED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패널 출하 면적이 전 분기보다 약 10% 증가하고 면적당 평균 판매가격

은 한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니터용 OLED 공급을 늘리는 한편 차세대 패터닝 기술인 ‘플립(F LiPP)’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투자 규모와 양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장기적으로는 IT·차량용 OLED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유비리서치는 중대형 OLED 시장 매출이 올해 100억1000만 달러에서 2030년 151억5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니터용 OLED 매출은 같은 기간 15억2000만 달러에서 46억9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OLED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변수”라며 “패널 가격 협상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여부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LG이노텍, 3분기 매출 신기록… 6조 돌파

반도체 기판 등 모든사업 매출 증대
환율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감소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수요에 힘입어 3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6조원을 돌파했으나 환율 하락 여파로 영업이익은 절반 넘게 줄었다.

27일 LG이노텍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3671억원, 영업이익은 9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3.4%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1.4%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5%로 전 분기 4.4%보다 2.9%포인트(p) 하락했다.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늘면서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이 시작되며 모바일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됐고, 고부가 반도체 기판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원재료 매입 시점과 제품 양산·출하 시점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앞서 증권가에서도 상반기 높은 환율에서 확보한 채고와 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차가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LG이노텍 마곡 본사 전경.

/LG이노텍

사업별로 보면 광학솔루션사업 매출은 5조40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고객사 신모델 양산에 따른 모바일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와 북미 고객사향 차량용 카메라 공급 증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광학솔루션은 전체 매출의 약 84.9%를 차지했다. LG이노텍은 인공지능 전환(AI) 기반 공정 자동화와 지능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핵심 부품 내재화와 글로벌 생산지 이원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패키지솔루션사업 매출은 48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다. 무선주파수 시스템 인 패키지(RF-SiP)와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등 반도체 기판 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의 PC 중앙처리장

치(CPU)용 제품 공급도 확대됐다.

LG이노텍은 FC-BGA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국내의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PC CPU용 제품 양산에 이어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서버에 쓰이는 고다층·대면적 기판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달 열린 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 ‘KPCA 쇼 2026’에서 AI 가속기용 대면적 FC-BGA를 처음 공개했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9356억원, 영업이익은 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94% 증가했다.

모바일솔루션사업 매출은 48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차량용 통신 모듈과 조명 등 주요 제품군이 성장하고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 디지털키 등 신사업 매출도 확대됐다.

이에 LG이노텍은 차량 통신·조명 등 고부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차량용 AP 모듈과 디지털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과 로봇 등 퍼지컬 AI 분야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엔솔-에너지스, 글로벌 ESS 사업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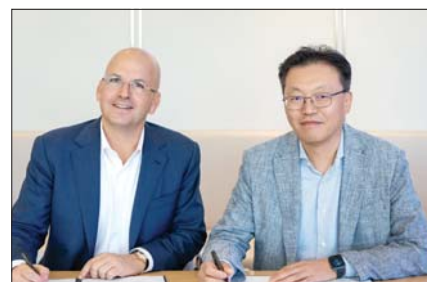
2GWh 규모 ESS 공급 목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이어 유럽에서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에너지스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발전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에너지스와 유럽·북미 ESS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Non-binding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24개월 내 유럽 약 1.5GWh, 북미 약 0.5GWh 등 총 2GWh 규모의 ESS 공급을 목표로 협력한다. 유럽·미국 법인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총 4.5GWh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사는 에너지스가 리투아니아에서 추진 중인 요나바(Jonav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협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약 320MWh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복합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이며



야사 레빈저 에너지스 최고경영자(CEO)(왼쪽)와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ESS전자사업부장 전무(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ESS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에너지스의 폴란드 노베 차르노보(Nowe Czarnowo) ESS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유럽·북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급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히게 됐다.

강창범 LG에너지솔루션 ESS전자사업부장 전무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ESS 사업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獨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 수주

네덜란드 법인과 1150억 규모 계약

대한전선이 독일에서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유럽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네덜란드 법인이 독일에서 38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을 탄기(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네덜란드 법인이 현지 설계와 시공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대한

전선 본사가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재 등 핵심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전선 본사는 이날 네덜란드 법인과 약 1150억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설계와 시공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 금액은 1150억원을 웃돈다. 발주처와 전체 계약 규모는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독일 지중 교류 전력망의 최고 전압인 380kV급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앞서 2023

년 1월에도 독일에서 같은 전압의 전력망 구축 사업 2건을 수주했다.

대한전선은 올해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 유럽에서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응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현지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초고압 전력망 사업에서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도 신규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hledhale@

삼성전자·텐센트·우리은행 업무협약

삼성전자가 텐센트·우리은행과 손잡고 ‘삼성월렛 머니’의 해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중국 선전에 위치한 텐센트 본사에서 텐센트·우리은행과 ‘삼성월렛 머니’ 해외 결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월렛 머니’는 삼성전자가 우리은행과 협력해 제공하는 충전형 간편결제 서비스로, 삼성월렛 앱에서 충전과 결제를 이용하고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 텐센트 금융기술부문 다니엘 홍 부사장,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3사는 중국 QR 결제 서비스 출시와 해외 결제 편의성 제고, 디지털 결제 분야 중장기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삼성월렛 사용자는 중국 전역의 위챗페이(WeChat Pay) 가맹점에서 ‘삼성월렛 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3사는 내년 1분기 중국 내 QR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